

10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22.10.25.(화) 오후 4시, 12층 대회의실
참석 위원 : 권혁남 위원장, 박찬재 부위원장, 정의식, 이현숙
유환익, 정경모, 김희중 7인(문해주, 김세한, 천경숙 위원 서면제출)
회사 참석 인원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심의실장

1. 다음 회의 일정

- 11월 일정 : 11월 22일(화) 오후 3시

■ 주요 내용

▲ 권혁남 위원장

- 연합뉴스TV는 보도채널로서 속보성을 유지하되 심층보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신문과 방송, 통신 등 기성언론(legacy media)이 뉴스를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독자와 시청자들이 뉴스를 직접 생산하는 시대가 되었다. 속보성 측면에서 이미 기성언론은 소셜미디어를 따라갈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9월 우크라이나에서 개최된 제 64회 세계신문협회 총회(World Newspaper Congress)에서 '뉴스란 15초 전에 알지 못했던 그 어떤 것'으로 새롭게 정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셜미디어는 현재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달해주는 하지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는다. 트위터 등이 뉴스를 먼저 알리지만,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기성언론의 몫으로 남는다. 연합뉴스TV는 사건의 원인과 배경, 의미, 전망 등을 분석하여 전달해 주는 뉴스의 문맥(context)을 강조하는 심층보도에도 더 주목해야 한다. 뉴스가 문제를 제기하고, 묻지만 말고 해결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이른바 솔루션 저널리즘(solution journalism)을 추구해야 한다. 뉴스가 단순히 사건의 보도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문제 해결방안도 동시에 제시하는 솔루션 저널리즘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만 치열하게 경쟁하는 다른 미디어들과 차별화시키는 전략이 될 것이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말씀대로 현상만 보도하는 것보다 대안까지 제시하는 솔루션 저널리즘으로 가야 하는데 사실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아무래도 취재를 훨씬 많이 해야 합니다.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여건이 여의치 않은 만큼 적절한 시점에 특정한 팀을 하나 만들어서 그 팀에서 큰 이슈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대안까지 제시하는 쪽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찬재 부위원장

<사회 현안에 대한 시리즈별 심층보도 확대 신설 검토 필요> 10월 17일부터 한 주간 심층보도 [현장르포 -마약-] 코너를 기획하여 시리즈로 보도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소수에 은밀하게 유통되는 마약이 최근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 없이 세대와 계층을 가리지 않고 번지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주 동안 마약문제 확산의 심각성을 공론화 노력을 하고 있는 연합뉴스TV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단독] 강남 클럽서 케타민 유통·투약한 종업원 적발> 소재형 기자 단독보도 리포트는 연합뉴스TV가 선도적으로 사회현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연이어서 한채희 기자 <마약 확산 '온상' 유흥클럽... 직접 가보니> 리포터는 더 나아가서 현장에 직접 잠입, 취재가 돋보였습니다. 강남클럽에 밤늦은 시간에 취재를 위해서 특히 화장실 들어가서 휴지통까지 뒤져가면서 정체불명 '흰 가루'봉투 까지 발견하였습니다. 밤새 서울 곳곳 클럽을 이동하여 취재를 보여주었고 더 나아가 며칠간 밤새 서울의 이태원 클럽 등 여러 곳의 장소를 옮겨 취재하였습니다. 기자로서 발로 뛰는 취재를 보여주었고 경각심을 주는 울림이 있는 리포트였습니다. 한 주간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연일 보도한 것에 대해서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한 보도였습니다. 또한 21일 날 뉴스현장에서 한채희 기자가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해서 아나운서와 대담형식으로 취재 이야기를 현장감 있게 생생하게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언론이 바른 사회로 이끌어간다는 측면에서 당시 사회현안 문제를 분야별, 영역별 등으로 나누어 시리즈로 심층적으로 확대 기획 보도하는 것은 어떠한지 제안합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사회부의 젊은 기자들이 기민하게 마약 기획 리포트 만든다고 품도 많이 들이고 고생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리포트뿐만 아니라 저희 취재기자가 직접 대담에도 출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또 경찰청하고 해양경찰청의 마약 담당 책임자도 별도로 출연해서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 정의식 위원

- 우주에서 본 지구 야간 위성사진 중, 북한의 불빛 중 평양 불빛 외에 다른 곳에서도 많은 불빛이 보이는데, 다른 뉴스 채널에서는 평양 불빛 외에는 다른 곳은 거의 보이지 않는데, 아마도 지금 북한 전기 사정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합뉴스TV 야간 위성사진은 언제 찍은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 '뉴스를 켜다': '세상을 켜다'란 타이틀 롤에 대한 표현에 대한 의지로 북한 땅에도 밝게 불빛을 입혔는지 모르지만, 실상도 그런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10/3 노란봉투법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업하는 기업(대기업, 중소기업, 하청기업 등)입장과 노동자 입장을 대변하는 상세한 설명과 분석이 매우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기업과 노동자들과의 합의점(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는 이슈들에 대한 자세한 보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랬듯이, 일반적인 상생이라는 강요가 아니라 치열한 토론을 거친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북한 쪽이 좀 밝게 보인다는 그 영상은 이른바 '채널 아이디'라고 하는 영상인데요, 저희가 뉴스하고 뉴스 사이에 그 시간대 방송을 하는 영상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다른 의도가 있어서 북한 쪽을 그렇게 밝게 한 건 아닙니다. 그래픽부는 세계 곳곳에 뻗어가는 취재망과 세계의 뉴스를 상징하기 위해 그렇게 작업했다고 설명합니다. 아무튼 오해 소지를 나을 수 있다면, 앞으로 채널 아이디 제작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오해가 없도

록 하겠습니다.

- 노란봉투법 말씀을 하시면서 일방적인 상생 강요가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달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워낙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어느 일방에 기대어 보도를 하는 것은 저희도 조심스럽습니다. 가급적이면 양쪽 입장을 두루 보여주면서 시청자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균형있게 보도하겠습니다.

▲ 이현숙 위원

- [특집다큐] 한글, K-콘텐츠 타고 세계로, 한글날 특집에 맞는 흥미로운 기획이었습니다. 드라마, 영화, K팝 등 한국 콘텐츠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는 현상을 1,2부에 나눠 K-콘텐츠,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편으로 한국식 영재 교육을 통해 클래식 음악, K-POP 등의 실력있는 뮤지션이 성장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치열한 경쟁이라는 정글 같은 생태계에서 살아남은 아이들과, 경쟁에서 밀려난 아이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강한 통제를 견뎌야하는 아이돌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압박감, 어린 나이에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것을 고민하는 불안감 등의 보이지 않는 그늘도 있어, 대학 수업 수준의 교육, 영재 교육 등으로만 간단하게 묘사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 10월10일 저녁8시뉴스 [현장의재구성] 3년 만에 '제대로' 열렸다...부산국제영화제 하이라이트, 부산 영화제의 하이라이트를 모아 재미있게 구성한 영상으로 기획의도는 좋았으나 도입부에 현장 분위기를 보여주며 자막으로 '소리벗고 팬티질러'라는 글이 보여 놀랐습니다. 후반부에 배우 양조위가 말할 때도 자막으로 '존버+1' 이라는 자막이 나왔습니다. 관객들이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닌데 굳이 자막을 그렇게 달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문화행사를 소프트하게 다룬 코너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도전문채널에서 맞지 않게 선을 넘었다는 느낌입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말씀하신 한글 케이 콘텐츠 세계로 제작물은 저희가 전파진흥원으로부터 제작 지원을 받아서 한 6개월 동안 제작을 한 건데요. K-콘텐츠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K-콘텐츠의 강점 위주로 묘사를 하다 보니까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그런 오해를 낳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 추정합니다. 앞으로 제작 과정에서 시청자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걸리는 부분이 없는지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 현장의 재구성 제작팀에서는 문화 행사이기 때문에 좀 소프트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젊은 감성을 선보인다는 차원에서 아마 이런 유행어들을 집어넣은 것 같은데요. 예능도 아니고 보도채널에서 이런 자막을 내보내는 것은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유행어를 쓰더라도 보도 채널에서는 어느 정도의 선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승호 심의실장

지금 저희가 디지털부문을 강화해서 디지털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본방송에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기본적으로 유튜브어법이라고 해서 요즘에 쓰이는 그런 것들을 걸러지지 않고 나온 거라서 이 부분은 저도 좀 지나쳤다고 생각합

니다.

▲ 유환익 위원

- 한전적자 국민전가 과정 상술 아쉬움, 지난 10월15일 방송되었던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고양이 목에 전기료 인상 청구사 달기 가능할까?”는 한전 적자 현황과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전기요금 인상 원인, 유럽의 전기절약 현황 등 최근 원자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전기부족 현황과 각국 대책 등 상세히 다루었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전기요금이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했지만 누적된 한전적자와 최근 원가가 상승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점을 상세히 설명하여 현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음, 한가지 아쉬운 점은 한전 적자가 왜 국민에게 전가되는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고 나아가서는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절약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미흡했음, 한전적자는 여러 과정으로 국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 먼저 뉴스프리즘에서도 언급했지만 한전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적자 누적은 주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게됨. 한전은 정부가 51%최대주주이지만 나머지 49%는 일반국민들이 보유하고 있음. 일반 기업의 경우 적자가 되면 가격인상을 통해 보전하기 때문에 주가가 일정 유지될 수 있음. 그러나 한전은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못하고 결국 누적적자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됨. 두번째는 결국 국민세금으로 보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불특정 국민들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물론 대부분 국민들이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감수해야 할 부분이지만 사용량과 상관없이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그만큼의 손해를 보게됨. 장기적으로 이는 전기사용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와 에너지낭비는 더욱 심화될 것임. 대책부분에서도 좀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이 지적되었으면 심층프로그램으로서의 의미가 돋보였으므로 보임. 현재 에너지분야에서 큰 딜레마는 화석연료가 여전히 저렴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측면에서 꼭 필요하지만 기후변화 문제가 있어 한계가 있고 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 측면에서는 매우 유용하지만 비용과 공간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에너지요금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임. 이를 위한 합리적 대책들을 제시하고 한편에서는 원전 부분도 언급했으면 시청자들 이해의 폭이 더 넓어졌을 것으로 보임

▲ 추승호 보도본부장

전기료가 시장 원리에 의해서 책정되지 못하고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좌지우지 되다보니 나중에 엉뚱하게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담을 크게 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 뉴스프리즘 내용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다만, 뉴스프리즘이 저희 나름은 심층이라고 하지만 한계가 있는 심층 기획입니다. 리포트 3개를 묶는 형식이고 분량도 총 10분이 안되다보니 그 안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 미처 못 담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주시시오. 좀더 많은 분량을 통해서 심층 보도할 수 있는 스페셜을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다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모 위원

- 지난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특히 문화예술 부문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공연과 전시가 취소되고 연기되었으며 지역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던 수많은 지역축제나 행사들도 거의 무산되거나 축소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 가을부터는 코로나19

의 완화추세가 완연하고 이에 따라 그동안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던 실외공연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등 점차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완화추세와 함께 각종 공연이나 전시 등 실제 참여하고 즐기는 공연예술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의 달 10월에 들어서며, 풍성한 문화예술 공연, 행사들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시청자들에게 관심과 흥미를 제공하는 알찬 보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내용도 영화나 대중음악 등 그동안 주로 다루던 장르를 탈피하여 생활예술,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미술전시회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어서 흥미 있게 보았습니다. 특히, “비내리는 개천절, 실내행사 생활예술페스티벌 북적(10/3)”, “휴일 쌀쌀한 날씨에 실내로..공공디자인 페스티벌(10/10) 등의 보도는 그동안 쉽게 접할 수 없는 내용으로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마스크 벗고 음악에 퐁당..가을날 야외공연 풍성(10/3)”, “새 주인 찾아 전시장 나온 김환기 ‘우주’..일반에 무료 공개(10/14)”, “마곡에 문 연 LG아트센터...서남부 예술중심지 되나(10/14)” 등 보도들도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계 소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보도라고 평가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문화예술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영화, 대중음악, 클래식, 문학 등 실로 다양한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반 시민들이 실제 문화예술을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부문에서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기반시설도 미비한 부분이 많고 제도와 의식면에서도 아직은 문화선진국에 비해 취약합니다. 문화예술은 단순히 보고 즐기는 수동적 참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참여하고 체험해보는 적극적 참여가 더욱 중요합니다. 정부나 지자체, 국회 등 정치권은 시민들이 직접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해야 하며, 미디어는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문화선진국의 사례에 대한 기획취재, 그에 따른 대안제시 등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다양한 주제를 지속적으로 담아내고 문제제기를 통해 일반인, 나아가 사회적 약자까지도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기사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 김희중 위원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으로 불릴 만큼 국민이 마약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했지만 현재는 10대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어 국민적 경각심이 필요한 상황임, 연합뉴스TV에서 마약 확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타 매체 뉴스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취재를 통해 여론을 환기 시키고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함

연합뉴스TV에서는 10.1일 이후 현재(10.19일)까지 모두 16건 이상을 편성했고 여기에 관련 기사로 법무부와 경찰 등의 대응 상황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마약관련 기사가 방영됨

<10월 마약관련 뉴스 현황>

- 10.1. 끊이지 않는 연예계 마약 범죄 모방범죄 우려 ‘돈스파이크’
- 10.2. 인터넷 마약 구매 느는데 ‘방심위’ 시정엔 1년 걸리기도
- 10.4. <자막뉴스> 제 발로 파출소 찾아온 마약 사범
- 10.5. 필로폰 상습 투약 돈스파이크관련 검찰 송치

- 10.7. <핫클릭> 청와대 행정관 재직중 필로폰 투약, 집행유예
- 10.11. 마약 사범 벌써 15% 폭증...양형기준 높여야
- 10.11. 농어촌까지 얼룩...마약 유통 외국인근로자 무더기 검거
- 10.13. 마약 삼켜 동남아서 밀반입 50대 사망...경찰 수사
- 10.13. <자막뉴스> 초콜릿 속에 마약이...2만명 분 마약 한미 공조로 적발
- 10.14. <뉴스현장> 동료에 엑스터시 건넨 프로 골퍼 구속...마약 범죄 확산
- 10.17. <마약1-단독> 강남 클럽서 케타민 유통.투약한 종업원 적발
- 10.17. <마약2-르포> 마약 확산 '온상' 유흥 클럽...직접 가보니
- 10.18. <마약3> 10대.20대 마약범죄 급증 .. 문턱 낮아진 마약
- 10.18. <마약4-르포> 텔레그램 다크웹 '마약거래'...실제 접촉해 보니
- 10.19. <마약5-단독> 낚시 바늘에 걸린 '마약 주사기'...DNA로 용의자 검거
- 10.19. <마약6-르포> '대량 밀수로'는 해상...바다 위 마약 전쟁

특히 <르포>를 통해 기자가 마약 확산의 온상인 유흥 클럽을 직접 찾아가 밤새 현장을 취재하거나 텔레그램과 다크웹을 통해 마약을 직접 구매해 마약을 주변에서 얼마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지를 국민에게 직접 시연해 남다른 취재력에도 인상이 깊었음. 다만, 10.18일자 <마약3>편의 자막에서 '문턱 낮아진 마약' 표기는 적절해 보이지 않음. 문턱이 낮아졌다는 표현은 통상 긍정적 의미로 받아들이기 쉬워 보이기 때문임. 차라리 '구매 환경 쉽게 노출' 등으로 바꿨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국민적 경각심이 필요한 뉴스인 만큼 자막 다는 일에도 신경 써 주면 좋겠음. 아울러 10.18일 <마약4-르포>에서는 기자가 우리의 일상에서 마약을 얼마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지를 시연했지만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마약을 구입하는 장면이 다소 디테일하게 소개돼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모방 범죄 심리를 불러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마약 구매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심으로 리포팅했으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음. 또한 '마약김밥'부터 해서 '마약옥수수' '마약가수' 돈스파이크 같은 경우는 마약 스테이크 보면 만약에 부정적인 사회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아주 희한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거를 그냥 어느 정도 순간에 받아들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일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들이 아울러 마약 뉴스를 집중 편성해 내보내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법과 제도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대한 뉴스도 함께 제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마약 기획은 사실 취재하는 기자로서는 위험부담도 있는 취재입니다. 리스크를 본인이 감수를 하고 취재를 해서 본부장으로서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몇몇 가지가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문턱 낮아진' 이런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이라서 자막으로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약 구매하는 절차를 묘사하는 것도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보기에 따라선 자세하게 보도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추후 취재에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겠습니다. '마약 김밥'이라든가 이런 표현은 방송에서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쉽게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표현이라서 무심코 썼는데 요즘처럼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는 이런 표현도 자칫하면 위해성에 대한 경계심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문해주 위원(서면제출)

이번 달에는 10월 15일에 발생한 '카카오 통신마비 사태'에 대한 보도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검토하였습니다. 동 검토내용은 10월 15일 오후 4시부터 19일 오전까지 연합뉴스TV를 직접 시청하거나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검토한 내용입니다. 10월 15일 오후 3시30분쯤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해 메신저 송수신 등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3시 58분에 '뉴스속보'로 보도한 이후 매 뉴스 시간대마다 시시각각으로 주요뉴스로 보도하여 시청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온 것으로 평가됩니다.

* 뉴스속보, 주요뉴스, 현장연결, 그래픽뉴스, 현장의 재구성, 사진구정 등, 또한 다음날 16일 오후 2시 전문가를 초대하여 '카카오톡 통신 마비 사태'에 대해 심층 보도한 이후 18일까지 13회에 걸쳐 각 분야의 전문가(변호사, 교수 등)와 입장을 달리하는 여/야 정치인을 초대,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려고 노력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주요 주제는 국정감사 증인채택 논의, 피해보상, 원인과 대책, 복구, 독과점 개선책 등으로서 전문가 시각에서 또는 여/야 정치인의 다른 시각에서 앵커의 Q&A를 통해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 뉴스초점(3회), 뉴스1번지, 뉴스포커스, 경제읽기(2회), 뉴스현장, 여의도1번지, 1번지이슈(2회), 뉴스프라임(2회)

다만 아쉬운 점은 국정감사 증인채택 등 쟁점사항에 대해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기회를 동일하게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10.16 뉴스1번지, 여2/야1)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보충(추가)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맞추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TV 화면에 제목을 송출할 때 과장되는 내용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판단을 고정관념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10월 17일 [뉴스초점] 시간에 '카카오에 올스톱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송출되었는데 앵커나 토론자는 그런 내용의 표현을 한 적이 없었고('카카오 먹통사태'라고 표현) 진행도 유연하게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스톱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은 좀 과장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시청자들이 카카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화시키거나 심지어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국정 감사 중 공방이 이뤄지거나 쟁점에 대한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는 여야의 발언 기회나 관련 화면 노출 빈도 등에 있어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스톱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도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려다 보니 지나친 측면이 있었는데, 사전에 거르지를 못했습니다. 뉴스 제작을 하면서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 김세한 위원(서면제출)

[현장의재구성] '국민 메신저' 먹통에 나라가 들썩...카톡이 뭐라고, 18일 보도된 <[현장의재구성] '국민 메신저' 먹통에 나라가 들썩...카톡이 뭐라고> 기사는 이번 카카오톡 화재 장애 사태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3분44초 영상에 담아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끈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카카오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모습과 카카오가 먹통이 된 뒤 난처해하는 실제 시민들의 모습, 가령 키보드 반환 처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지불해야 할 요금이 50만원을 넘었다는 게시글, 식당을 예약하는데 불편을 겪은 시민 인터뷰, 이번 화재 사태에 대한 카카오 측(양현서 부사장)의 입장 발표 등 장면을 집약적으로 짧은 영상에 담아낸 편집이 돋보이는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카카오톡 장애 사태 집

단소송과 관련된 첫 단독보도를 한 만큼 이후 카카오 측의 보상 내용이나 소송 진행 과정 등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다양한 후속보도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카카오 사태는 19일 복구 발표와 대표 사퇴, 대국민 사과 등이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인 공방이 예상됩니다. 발화 원인, 책임 소재 규명, 무료 이용자를 포함한 보,배상 문제 등이 이제 시작입니다. 과거 KT 아현국사 화재의 경우 이른바 '보상'이 실제 지급되기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플랫폼 독과점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각 분야에서 진행 상황에 맞춰 후속 보도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 천경숙 위원(서면제출)

- 학교 안팎 전기차 충전소...어린이보호 '사각' 우려-10-04 최근 전기차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충전시설도 곳곳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충전시설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어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용주차장 앞에 초등학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주차장 안에는 24시간 운영되는 전기차 충전시설 한 대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충전소가 있는 이곳 안으로 들어오면 더 이상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내년에는 이곳 주차장에 더 많은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아예 학교 안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 곳도 있는데, 학교 내부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시설 주변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부담을 느낀 학교 측은 개방하지 않고 있지만, 친환경 자동차 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개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걱정스러운 뉴스가 전파를 탔습니다. 그래픽 뉴스 처리도 잘되어있고 국회의원의 인터뷰 내용도 적절하여 시청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전기차의 충전소를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학교 안팎으로 차량이 드나들게 되면 교통안전, 학생 안전, 학교 보안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으며, 교육부와 관계기관이 교내 전기차 충전 및 주차시설 관리와 운영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부모와 동시에 녹색어머니로서 아이들의 안전 확보와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 공용주차장이거나 교내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절실합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어린이 등 교통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부는 지속적으로 이 사안을 보도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후속 보도에 충실하겠습니다.